

“올해도 찾아온 산타”...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북미항공사령부 69년째 산타 추적...모바일 앱 등 통해 전송 북극서 썰매타고 이륙해 수십억개 선물...작년엔 韓·北 방문

전쟁과 질병으로 얼룩졌던 올해 지구촌에도 성탄절 하루만큼은 사랑과 축복을 나누려는 산타클로스가 전세계 밤하늘을 돌며 썰매를 타고 야간 비행에 나선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산타의 비행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등으로 중계한다고 밝혔다.

산타는 루돌프 여러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북극에서 이륙한 후 예년과 마찬가지로 날짜변경선을 따라 태평양 상공으로 남하한 후 서쪽으로 이동하며

수십억개의 선물을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스 커닝엄 미 공군 중장은 북극에서 이륙하는 산타를 처음 포착하는 곳은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NORAD 레이더이지만 태평양에서부터는 인공위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겠지만 북극 빛나는 (순록) 루돌프의 코는 많은 열을 발산한다. 그런 열원(熱源)을 통해 위성들이 산타를 추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제주와 부산, 서울 등 순으로 이동하며 경북공 등 한국내 명소를 찍고 평양을 거쳐 중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어린이들의 전화에 응답하는 자원봉사자들./AP=연합뉴스

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우주로도 찾아가 우주비행사들이 머무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주변을 맴돌기도 했다고 NORAD는 전했다.

잠재적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북미 대륙 상공을 지키는 NORAD는 1958년부터 69년째 산타의 비행 경로를 실시간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작은 미·소 냉전이 본격화하고 핵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위협하던 1955년 걸려온 잘못된 전화였다고 한다.

현지 백화점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신문에 게재한 ‘산타에게 전화걸기’ 이벤트 광고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이벤트 광고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당시 긴급사태 전용 ‘레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해리 W. 슈프 공군대령은 한 어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읊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슈프 대령은 “그 아이는 좀 더 말을 이어가다가 숨을 들이쉬고는 ‘당신은 산타가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순간적 기지로 “호, 호, 호! 맞다. 난 산타클로스다. 난 착한 아이냐?”라고 답해야 했다고

털어냈다.

그날부터 며칠간 CONAD에는 미국 곳곳의 어린이들로부터 하루 5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고, CONAD의 한 직원은 재미삼아 북극에 산타와 순록이 끄는 썰매를 그려넣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23일 AP 통신은 콜로라도 스프링스발 기사에서 “산타클로스가 CONAD로부터 이번 금요일 미국으로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았다”면서 산타가 ‘크리스마스를 안 믿는 이들’로부터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듬해부터 CONAD와 후신인 NORAD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전달해주는 이벤트를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유래의 진위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여소야대 상황 속...대만서 ‘헌재결정·의원소환’ 법개정 놓고 의원 난투극

선출직 공무원 파면시 청원서 서명에 신분증 사본 제출 등 담겨 與 민진당 반대에도 국민당 등 野 강행...생수병 던지고 육탄전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다수 야당이 여당과의 난투극 끝에 의원 소환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직자소환법(公職人員選舉罷免法)과 헌법재판소절차법(憲法訴訟法) 개정안이 입법원을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은 현재 결정과 가처분 요건을 헌법재판관 총인원의 ‘과반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등 현재 결정 시 앞으로는 재판관 15명 중 10명이 상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대만 헌재에는 재판관 8명이 있고 7명은 공석이다. 또 공직자소환법 개정안은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투표를 거쳐 파면)을 요구할 때 청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신분증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청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소환 청원서 제출 시 서

명한 사람들의 신분증 번호와 등록 주소만 제시하도록 했는데 문턱을 더 높인 것이다.

독립·친미 성향인 여당 민진당은 이들 개정안이 국민의 공직자 감시 및 파면권을 약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제야당이 원내 1당이던 친중 성향의 국민당은 소수 재판관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의원 파면도 더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당은 결국 이날 제2야당 민중당과 연합해 두 법률의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현 대만 의회는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야당이 국민당과 민중당이 연합해 여소야대 상황이다.

야당이 법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민진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막기



지난 20일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의원 소환·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건 등의 법개정을 놓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위해 19일부터 의장석을 점거하고 출입구에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았고, 20일 오전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흰옷을 입고 의장석을 차지하려는

국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민진당 의원은 서로 밀치며 육탄전을 벌였고 일부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고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지기도 했다. 몇몇은 충돌 과정에서 다쳤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어느 정도 상처인지는 알려지

지 않았다. 입법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총통 공포를 거쳐 확정된다. 민진당 소속인 라이칭더 총통이 법안을 다시 입법원으로 넘길 수 있으나 야당이 다시 가결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10년전 실종 239명 탑승 말레이항공 정부,美업체 제안 수용 재수색 결정

말레이시아가 10년 전 흔적 없이 사라진 국제 여객기 수색 재개에 나서 세계 최대 항공 미스터리 중 하나가 이번에는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해양탐사업체 오션인피니티의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 MH370편 재수색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안토니 록 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밝혔다. 록 장관은 내각이 지난주 재수색을 승인했으며, 내년 초에 계약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수색 지역은 전문가와 연구진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며 신빙성 있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오션인피니티는 18개월간 서호주 연안 1만5천㎢ 해역을 수색하고, 실종기 잔해 주요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만 7천만달러(약 1천150억원)를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탐사 기술이 개선됐으며 많은 전문가와 자료를 분석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수색 지역을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MH370편 여객기는 2014년 3월8일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해 이륙한 지 약 40분 후 갑자기 사라졌다.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